에디터 최현주 사진 오충근

혜초여행사 석채언 대표

해외 트레킹 여행, 1:1 맞춤형 시스템을 실현하다

해외 트레킹 여행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여행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 것. 오로지 산을 오르기 위해 중국 네팔 인도를 넘어 유럽으로 떠나는 트레커가 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홀로 짐을 꾸려 히말라야로 향하고 있다. 네팔에만 연간 1200명 이상을 송출하는 국내 1위 트레킹 전문 여행사, 혜초여행사의 올해 목표 역시 이들을 향해 있다.

"최근 5년 전부터 산에만 집중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시내 관광은 제외하고 히말라야면 히말라야, 알프스면 알프스에만 가려는 이른바 트레킹 마니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러한 곳을 개별적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어요."

사이트 몇 개만 뒤지면 여행 정보가 쏟아지고, 클릭 한 번으로 항공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요즘, 굳이 낯선 여행자와 함께 그룹 투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일반 여행과 달리 트레킹 여행은 현지 교통편과 장비, 포터까지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만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제아무리 트레킹 전문 여행사라도 위기를 느낄 법도 한데, 혜초여행사의 석채언 대표는 고개를 젓는다. "개별적으로 트레킹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예를 들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카트만두까지 가는 항공편에 네팔 국내선을 이용한 포카라행 항공편, 그리고 트레킹 시작점으로 가는 육로 교통편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로지를 취향대로 고르고, 현지 가이드도 선택, 본인에게 맞는 1:1 맞춤형 패키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트레킹 여행에 필요한 예약 정보는 기본, 로지의 메뉴까지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보여준다니 초보자라도 걱정 없이 해외 트레킹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혜초여행사는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대대적으로 정리, 현재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 우기가 시작되는 6월이 지나 하반기 트레킹 시즌 때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욱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혜초여행사. 하지만 해외 트레킹을 꿈꾸는 이들이 이 여행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 그리고 그들의 강인한 산악인 정신.

"트레킹 부서 직원 50% 이상이 산악부 출신입니다. 그렇지 않은 직원은 입사 후 등산학교라도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열 걸음 먼저 나가 눈을 치워주고, 자기는 동상이 걸리더라도 동료에게 장갑을 벗어주는 정신, 그러한 산악인 정신이 없으면 인솔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레킹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혜초여행사가 설립된 건 1992년. 아직 해외 트레킹이 일반화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네팔에서 4년간 가이드를 하며 현장을 치열하게 경험한 석채언 대표, 그가 있었기에 혜초여행사가 내놓는 상품은 하나같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국내 최초 영국 탐험 트럭을 이용한 인도 네팔 여행, 국내 최초 카트만두에서 티베트 라사까지 횡단 여행, 국내 최초 대한항공 파키스탄 전세기 270명 운항 등이 그것. 1997년엔 인도 네팔 여행 상품과 트레킹 상품으로 부동의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혜초여행사는 최근 캠핑 사업에도 진출, 캠핑홀리데이라는 캠핑 브랜드를 론칭했다. 차별화된 고품격 캠핑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 현재 전국 8개 지점(정선점, 가평점, 청송점1호, 청송점2호, 군산점, 담양점, 제주)을 오픈, 올해 안에 성주와 충주 지점까지 10개 점의 캠핑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연간 송출 1만 3000명의 국내 1위 트레킹 전문 여행사이자 재구매율 업계 1위이기도 한 혜초여행사. 트레킹 전문 여행사로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파온 석채언 대표가 혜초여행사를 통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

"자연이 주는 압도적 감동, 힘겨운 트레킹을 통해 얻는 성취감,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